

발행인: 이예식
편집인: 홍문표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발행일: 2010년 6월 4일
URL: <http://society.kisti.re.kr/~ksli/>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홍문표 교수 연구실내
전화: (02) 760-0294
e-mail: skkhmp@skku.edu

1. 월례 논문발표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 1학기도 어느덧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월례논문발표회도 6월 모임을 끝으로 1학기 모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6월 모임의 FISA 특강은 **송민영(동국대)** 선생님께서 “Epistemic Modality and Evidentiality”라는 제목으로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번달 기획 논문은 **이용훈(충남대/한남대)** 선생님의 “Type-inherited Combinatorial Categorical Grammar for English and Korean”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그리고 **류수린(서울대)** 선생님, **김정숙(성균관대)** 선생님께서는 각각 “LFG 연구의 한국어 문법 기술에서 템플릿의 활용”라는 제목의 논문과 “이동방식과 경로 유형이 이동 사건의 표현에 미치는 영향: 영어 화자와 한국어 화자의 비교”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월례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한정 연구이사(hanjung@skku.edu)나 홍문표 총무이사(skkhmp@skku.edu)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언어와 정보] 논문 모집

- ▶ 우리학회의 논문지인 [언어와 정보]가 한국연구재단의 2009년도 학술지평가 결과 ‘등재유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논문투고를 통해 우리 학회지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투고되는 논문은 내년도 학술지평가사업의 대상이 되니, 더욱 적극적으로 논문 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6월말에 발행될 [언어와 정보]에 실을 원고의 접수는 마감되었습니다. 12월말에 발행될 논문집에 실을 원고의 접수는 계속 진행중이오니 언제든지 논문을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자유로운 스타일로 아래아 한글이나 MS Word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꼭 논문 요약약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외 논문의 스타일은 학회 홈페이지(<http://society.kisti.re.kr/~ksli/>)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고하실 분은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617-716 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산 69-1 동서대학교 영어학과 정찬 교수 (cchung@dongseo.ac.kr)
-------	---

- ▶ [언어와 정보]는 일반 논문(general paper) 외에도 소고(squib), 서평 또는 논평(review), 또 이에 대한 답론(reply) 등 여러 형태의 투고를 받습니다. 논문 투고 시 투고 형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 출판 시 라텍 편집비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심사료: 30,000원
논문 게재료:

- 1) 연구비 수혜 논문: 2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300,000원)
- 2) 연구비 수혜를 받지 않은 일반논문:
 - (i) 저자 중 한 사람 이상이 전임인 경우 1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200,000원)
 - (ii) 모든 저자가 전임이 아닌 경우 20,000원 (심사료 포함 총 50,000원)

- ▶ 논문 게재에 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원고 제출에 관해 의논하시려면 편집위원장인 정찬 교수님(cchung@dongseo.ac.kr)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3. 정기학술대회

- ▶ 우리 학회의 정기학술대회가 5월14일부터 15일까지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최재웅 교수님의 의미론 특강, 이한정 선생님의 통계처리 세미나를 비롯한 풍성한 프로그램과 학회를 준비하신 충남대 언어학과 노용균 교수님, 류병래 교수님 및 학생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훌륭한 학술대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학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 ▶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신 회비로 운영됩니다. 2010년도 연회비를 징수하고 있사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정회원 40,000원, 준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평생회비: 400,000원

- ▶ 연회비는 월례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다음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264-025835 (예금주: 김정임)

- ▶ 아울러 주변의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신입회원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홍문표 총무이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skkhmp@skku.edu)

5. PACLIC 24/ LENLS 7 학술대회 논문제출 마감안내

- ▶ 11/4-11/7까지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되는 PACLIC24 학술대회의 논문마감일자가 6월14일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술대회 홈페이지 (<http://www.compling.jp/paclic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아울러 11/18-11/19,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LENLS 7(Logic and Engineering of Natural Language Semantics) 학술대회의 논문제출 마감은 8월 15일임을 알려드립니다. 논문은 lens7submission@gmail.com 의 주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언어정보학회 2010학년도 1학기 월례회 일정표

장소: 대우재단 8층 1실 시간: 9:30-13:00

날짜	시간	구분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	
3/20 (토)	09:30 10:30	기획1	임서현 (Brandeis University)	Semi-automatic Construction of the Event Structure Lexicon for Textual Inference Tasks	유은정 (서울대)	
	Coffee Break (15분)					
	10:45 11:45	*FISA 특강	위혜경 (단국대)	의미적 초점 이론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Coffee Break (15분)					
	12:00 13:00	기획2	이익환 (상명대)	Resultatives in Event Semantics		
4/24 (토)	09:30 10:20	기획	이준규 (경희대)	Representation and Processing of Noun-Noun Compounds in a Second Language	이해윤 (한국외대)	
	Coffee Break (20분)					
	10:40 11:40	FISA 특강	윤애선 (부산대)	감정 온톨로지 구축과 활용: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Coffee Break (20분)					
	12:00 12:30	일반	조세연 (강원대)	A Constraint-based Analysis of Object Extraposition in English		
	12:30 13:00	일반	홍정하 (고려대)	한국어 보조사의 격표지 지위: 코퍼스언어학적 접근		
6/12 (토)	09:30 10:20	기획	이용훈 (충남대/한남대)	Type-inherited Combinatorial Categorical Grammar for English and Korean	홍문표 (성균관대)	
	Coffee Break (20분)					
	10:40 11:40	FISA 특강	송민영 (동국대)	Epistemic Modality and Evidentiality: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Coffee Break (20분)					
	12:00 12:30	일반	류수린 (서울대)	LFG 연구의 한국어 문법기술에서 템플릿의 활용		
	12:30 13:00	일반	김정숙 (성균관대)	이동방식과 경로 유형이 이동 사건의 표현에 미치는 영향: 영어 화자와 한국어 화자의 비교		

*FISA 특강시리즈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한국언어정보학회 2010년 6월 월례회 발표논문 초록

<기획 논문>

Type-inherited Combinatory Categorical Grammar for English and Korean

Yong-hun Le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Hannam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implemented grammar of a Korean fragment. Here, a fragment refers to a part of a language as in Montague grammar (Montague, 1974). The formal grammar which this paper wants to implement is Combinatory Categorical Grammar (CCG; Steedman, 1996, 2000), and the grammar engineering tool is the LKB system (Copestake, 2002). Because the system employs the typed feature structure formalism, it is easy to implement the CCG in the system.

Actually, Beavers (2002, 2004) developed a Type-inherited Combinatory Categorical Grammar (TCCG) system for an English fragment. However, the TCCG system which is implemented in this paper is not just a Korean counterpart of Beavers' system, since the Korean TCCG system has to include language-specific syntactic phenomena such as Case markers, delimiters, and scrambling. Therefore, though the implementation in this paper is theoretically based on Beavers' TCCG system, the grammar also contains the computational implementations that properly handle those kinds of language-specific phenomena.

In this study, along with the basic architecture of the TCCG system for a Korean fragment, computational implementations are provided for five major syntactic operations in CCG (*functional application, functional composition, type-raising, functional substitution, and co-ordination*). The syntactic phenomena included here are Case markers, delimiters, scrambling, non-type-raised co-ordination, type-raised co-ordination, right node raising, parasitic gap, and relative clauses. Beavers' TCCG system for an English fragment will be introduced compared with the TCCG system for Korean, whenever it is necessary.

<FISA 특강>

Epistemic Modality and Evidentiality: Fundamentals, Issues and the State-of-the-Art

송 민영 (동국대)

Traditionally, epistemic modals have been dealt with on the basis of entailment by what is known within the standard semantics of modality, including Kratzer (1979 and 1991). The problem with the treatment is that the entailment from what is known is not appropriate for the semantics of epistemic modals in some cases. Observing that epistemic modals behave like an inferential evidential, I will argue that evidentiality must be considered for the semantics of epistemic modals. According to this, epistemic modals do not involve the entailment by what is known but signal that a certain conclusion is reached from a body of evidence. Based on this, the present study argues that the semantics of epistemic modals consists of an evidential component which signals a source of information and an epistemic component which reflects the speaker's assessment of the source of information. This plays an import role in the speaker determining which modals are chosen and how the modal force differs among modals (i.e. weak and strong modals).

<일반 논문 1>

LFG 연구의 한국어 문법기술에서 템플릿의 활용

류 수린 (서울대)

본 연구에서는 “어휘기능문법 (Lexical Functional Grammar)”의 최근 연구들 (Dalrymple 2006; Frank et al. 2001; Kaplan et al. 2003)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 한국어 문법구조를 기술하고, LFG의 구현환경인 “Xerox Linguistic Environment (XLE)”(Crouch et al. 2002; Butt et al. 2003)를 적용하여 문법기술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어 문법 모형의 사전 구축과 관련하여 한국어 기본 문형들에 대한 기존 연구들 (노용균 1997; Lee et al. 1998; 김종복 2004 등)을 참고하여 술어들의 다양한 하위 범주화 정보들을 템플릿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한다. 또한 이들 템플릿들의 유형 정보가 위계구조를 사용하여 상속되고 (Flickinger 1987; Dalrymple et al. 2004), 보다 통합된 어휘정보의 구조화가 가능한지 XLE시스템을 통해 검증해 본다. 이때 사전내의 자질정보들과 하위어휘 규칙들을 통해 통사구조를 분석하는 c-구조와 f-구조를 상세히 살펴보고 한국어 처리 시스템으로서의 장점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다국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Parallel Grammar (ParGram) Project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자질 및 템플릿 규약의 문제점을 토론했다 보고자 한다.

<일반 논문 2>

이동방식과 경로 유형이 이동 사건의 표현에 미치는 영향: 영어 화자와 한국어 화자의 비교

김 정숙 (성균관대)

Talmy(1985)는 이동 사건(motion event)의 핵심적 의미요소인 이동 경로(path)가 전치사류(satellite) 혹은 동사(verb)에 표현됨을 발견하고, 세계어를 S형 언어(예: 영어)와 V형 언어(예: 한국어)로 크게 양분하였다. 같은 내용을 주동사 위주로 보면, 영어에서는 주동사에 이동 방식을 표현하는 방식동사(예:run)가, 한국어에서는 이동경로를 표현하는 경로동사(예:enter)가 주로 쓰인다 할 수 있다. 또한, S형 언어 화자들은 이동사건의 의미요소 중 이동경로-원인(Manner-Cause)간 관계에 민감하여 이동방식이 이동의 원인이 되는 경우(이동유발형, Manner-Inherent)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동우발형, Manner-Incidental)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한 동사구 내에 이동 방식과 이동 경로 두 의미요소를 표현하는 단문형(tight packaging), 후자의 경우에는 동 표현을 위해 두 동사구를 이용하는 복문형(semi-tight packaging)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Allen et al. 2007). 반면, 유형적으로 복문형을 선호하며 이동 경로에 종착점(end-point)이 암시되어 있는지(종착형, Path-Telic) 그렇지 않은지(비종착형, Path-Atelic)에 민감하다고 알려진 V형 언어 화자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경로동사와 방식동사를 사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두 상이한 유형의 언어를 접하는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경우, 상기된 이동 방식(Manner Type)과 경로의 유형(Path Type)이라는 언어특이적 요인 및 영어 능력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원어민과 이중언어사용자와는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피험자 100 명은 원어민 (E1), 이중언어사용자(EK), 비원어민 상위그룹(KE-high) 중위그룹(KE-mid), 하위그룹(KE-low) 5 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총 36 개의 그림 각각에 대해 세 유형의 주어진 문장을 1 에서 10 까지의 숫자를 이용하여 그 적절성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였다. 세 유형의 문장은 각각 Tmv(주동사에 방식이 표현된 단문형 구문), Smv(주동사에 방식이 표현된 복문형 구문), Spv(주동사에 경로가 표현된 복문형 구문)형식이며, 36 개의 그림 중 각 9 개는 네 개의 조건을 대표한다(이동유발-종착형, 이동유발-비종착형, 이동우발-종착형, 이동우발-비종착형).

Tmv구문에서는 E1, EK, KE-high, KE-mid 그룹순, Smv구문을 통해서는 E1, EK, KE-high순, 그리고 Spv구문을 통해서는 E1 그룹이 이동 방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민감도를 드러냈다.

한편, T-high와 T-mid그룹은 한국어 특이적인 Spv구문에서 E1, EK와는 다른 반응을 보임으로써 이동 방식의 영향과 함께 경로 유형의 영향을, 그리고 한국어적 경향의 영어로의 부분적 전이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들에서 영어능력의 해당 수행으로의 높은 상관도가 드러난 한편, 유형론적으로 가장 영어특이적인 Tmv의 경우 학습이 용이하고, Smv, Spv로 갈수록 그렇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표면적 언어능력 이외에 목표언어에서 작용하는 이동 방식에의 민감도를 올리는 일도 중요함이 밝혀졌다 하겠다.